

실로암
시각장애인복지관

151-843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17 (은천동 931-7)

TEL 02.880.0500
FAX 02.887.1120

실로암 홈페이지
<http://www.silwel.or.kr>

실로암 트위터
<https://twitter.com/silwel2>

실로암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ilwel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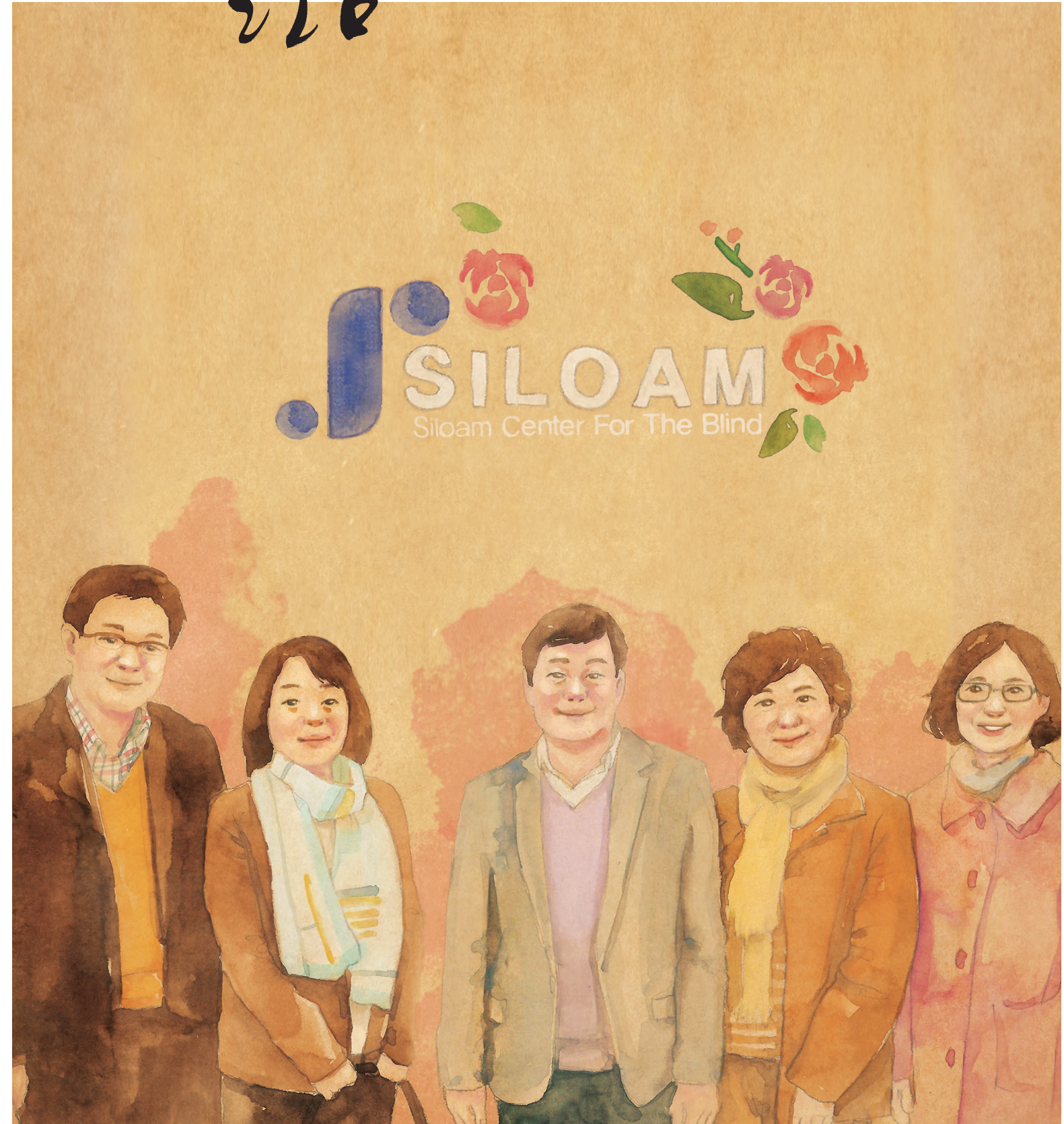
실로암 해피로그
<http://happylog.naver.com/silwel.do>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시각장애인의 재활복지를 선도하는 국내 최대의 시각장애인 복지관입니다

vol.117

빛을 주는 실로암

이웃을 내 몸 같이,





제호 격월간 「빛을 주는 실로암」
 발행일 2014년 12월 19일 통권 117호 이사장 김선태 발행인 김미경 편집인 함요한
 발행처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주소 (151-84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17 (은천동 931-7)
 TEL 02.880.0500 FAX 02.887.1120 E-mail silwel@chol.com Homepage http://www.silwel.or.kr
 Telnets bbs.silwel.or.kr Web BBS http://web.silwel.or.kr ARS 02.880.0900 문의 홍보팀 02.880.0867
 디자인 인쇄 우리미술 02.2275.6960

10+11
 October November

"나는 세상을 배우는 사람들과 배우지 않는 사람들로 나눈다.
 배우는 사람들은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교훈을 듣는다.
 어리석은 짓을 해도, 두 번 다시 거듭하지 않는다. 그리고 조금 효과가 있는 뭔가를 해내면
 다음번에 그 일을 할 때는 더 열심히 더 잘한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성공한 사람이냐, 실패한 사람이냐가 아니라 배우는 사람이냐 아니면 배우지 않는 사람이냐다."

_벤자민 바버



Contents



04 **새소식 ①**
 2014 실로암콘서트 '흰 지팡이를 든 어린왕자'



05 **새소식 ②**
 시각장애인 11명, 해병대 병영체험

06 **사랑나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나눔_복지관 대지기증자

08 **해피스토리**
 사진으로 보는 10월~11월 사업 현장

11 **포커스**
 국내 최초 시각중복장애인을 위한 전문교육재활센터,
 '설리번학습지원센터' 11월 11일 개관



14 **문화산책**
 다산의 얼이 느껴지는 "남양주 다산 유적지"

15 **정보&이슈**
 중국 대체도서 제작의 중심, 중국점자출판사

16 **미리보기**
 2015년 1월, 2월 행사 안내

17 **나눔플러스**
 후원안내

2014 실로암콘서트 '흰 지팡이를 든 어린왕자'

시각장애 아동청소년들이 꾸미는 아름다운 하모니

실로암콘서트는 2009년부터 시작되어서 올해로 6번째 공연입니다. 2009년에 시작한 실로암콘서트는 시각장애인 전문연주가 꾸민 공연으로 시작되었으며, 2012년부터는 음악을 공부하는 시각장애 학생들이 주인공이 되어 무대를 꾸며왔습니다. 이번 2014년 실로암콘서트 또한 시각장애 아동청소년들이 중심이 되어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윤선혜 학생 (실로암콘서트 참가자)

"이런 무대 설수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더 노력해서 훌륭한 음악인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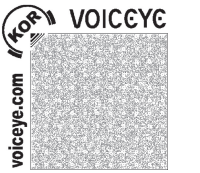
지난 11월 18일 화요일 서울맹학교 백송관에서 열린 2014 실로암콘서트는 '흰 지팡이를 든 어린왕자'라는 주제로 시각장애 아동청소년들이 주인공이 되어 꾸며지는 무대였습니다.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 소설 중 '마음으로 보아야만 잘 볼 수 있어.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라고 여우가 어린왕자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들을 시각장애 아동청소년들이 아름다운 선율로 들려주었습니다.

2014 실로암콘서트에 참여하는 시각장애 아동청소년들은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음악재활아카데미에서 1년간의 음악교육과정을 이수한 50여 명의 학생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음악재활아카데미는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콘서트 무대는 바이올린과 플루트 합주, 클라리넷 합주, 사물놀이, 국악동요, 밴드공연 등 다양한 합주 무대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올 여름, 처음 복지관에서 시각장애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던 전문음악인을 양성하기 위한 여름음악캠프에 참여한 학생들도 함께 연주하였습니다. 이들은 실내악으로 쇼스타코비치의 왈츠(번지점프를 하다 ost)와 동서양 악기가 함께 연주하는 You Raise Me Up을 통해 음악적인 수준을 한껏 높였습니다.

시각장애인 11명, 해병대 병영체험

강한 훈련과 엄정한 군기를 체험하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얻어



예비역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해병대에 시각장애인 11명이 직접 병영체험에 도전하였습니다.



지난 11월 6일에서 7일까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해병대 제2사단에서 병영체험이 진행되었습니다. 강인한 훈련과 엄정한 군기를 통해 해병대 정신을 배우고 시각장애인들의 안보의식 함양과 자기 극복의지를 고취시키고자 진행된 이번 병영체험은 시각장애인들의 또다른 도전이었습니다.

11월 6일 목요일 오전 9시, 부대 입소와 동시에 전투복과 전투화, 방탄헬멧 등을 지급받았습니다. 군복을 착용한 시각장애인들은 다소 긴장한 모습으로 연병장에 집합하였습니다. 안전사고 대비 및 원활한 교육진행을 위해 현역 장병들이 함께 참여하여 1대1 매칭이 이루어졌고, 서로 상호 교감을 나누며 어느덧 시각장애인들은 긴장감이 사라지고 기대감으로 훈련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본격적인 병영체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현역 장병 못지않은 패기와 목소리로 유격훈련장에서 PT체조와 외줄·두줄 도하를 교관의 통제에 따라 무리없이 실시하였고, 무장 착용으로 2시간가량 도보행군을 통해 지칠 줄 모르는 체력과 굳은 땀방울을 흘렸습니다.

또한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맡는 해병대 특성체험을 위해 KAAV(한국형 상륙장갑차)를 탑승해 보고, 생활반 상태 및 인원 등을 확인·점검하는 '저녁점호'를 실시함으로써 해병대의 정체성과 소속감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창현 님 (병영체험 참여자)

"평소에 군대에 대해 간접적으로 이야기만 듣고 막연히 동경만 하고 있었는데,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고 설레었습니다. 1박 2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힘든 체험들을 잘 견뎌 나 자신이 자랑스럽고, 사회에 나가서도 이번 경험들을 바탕으로 아무리 힘든 역경이라도 이겨낼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나눔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1999년 1월에 설립되어 올해로 16년이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 전문복지관으로 국내에서 선두를 달리며, 시각장애인들의 재활과 복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관이 탄생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분들의 후원과 사랑으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복지관 설립의 큰 도움을 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바로 복지관 부지를 기증해주신 **故김능원 씨 부부와 그의 자제분 김광수, 김광호, 김광섭, 김광민 형제**입니다.

부모님께 배운 그대로

1985년 8월 환갑을 기념하며 여행을 다녀오던 **故김능원 씨** 부부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4명의 자제분이 있었고 그들은 부모가 남겨주신 이곳 봉천동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부지를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힘든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셨던 부모님의 뜻을 이어받아, 4형제는 시각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 아무런 대가없이 부지를 기증해주셨습니다.

김광호 님 (故김능원씨 부부의 4남 중 둘째)

"아버지께서는 평양에서 태어나 평양사범을 졸업하셨습니다. 해방 이후, 공산당의 재산 및 토지몰수로 인해 아버님은 홀로 남쪽으로 내려오셨고, 그 때 마침 38선이 그어지면서 이북에 가족을 두고 홀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연고 없었기에 산에서 나무 딸감을 구해 시장에 파는 일을 하시며 생활하시다가 평양사범 졸업장이 남한에서 인정받아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평소 검소한 생활을 강조하셨고,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베풀며 사셨습니다. 이러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저희 4형제는 상속재산을 오랜 고민 없이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 기부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지를 기부한 일로부터 16년이 되어서야 다시 복지관을 찾아오게 되었으며, 복지관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서 너무 감격했고, 하늘에서 기쁘시게 보고 계실 부모님 생각에 감사했습니다. 사실 복지관에 대지를 기증할 당시에는 지금의 복지관 모습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작은 나눔이 이렇게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니 너무 놀랍고 애써주시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름다운 나눔으로 시작된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의 처음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이사장으로 계신 김선태 목사님께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관을 설립하고자 부단히 노력하였지만 많은 어려움들에 봉착하였습니다. 복지관을 설립하기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했기에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김광수, 김광호, 김광섭, 김광민 형제가 복지관 부지를 기증해 주셨고 이를 계기로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건물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많은 복지관들이 이용자가 방문하기 힘든 서울 외곽이나 골목 언덕길에 위치해 있어 찾아가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지하철 2호선 봉천역 4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특히 이동권의 제약이 많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최적의 조건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이점들로 인해 국내에서 시각장애인 이용자가 가장 많은 복지관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역시 김광수, 김광호, 김광섭, 김광민 형제의 귀한 나눔에서부터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나눔을 해주신 **故김능원 씨** 부부와 김광수, 김광호, 김광섭, 김광민 형제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분들과 같은 아름다운 나눔이 가득한 세상이 되길 희망합니다.



시대를 초월한 스승
 낮은 담 너머로 백성들을 바라본 사람
다산 정약용 (茶山 丁若鏞)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역사 지식과 문화적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의 다양한 고적지와 명소를 방문하는 고적답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고적답사 장소로 정약용 생가를 선택하였습니다.



다산 정약용(1762~1836)은 1762년(임오년 영조38년) 음력 6월 16일,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당시 광주군 초부면 마현리)에서 아버지 나주정씨(羅州丁氏) 재원(載遠) 과 해남윤씨(海南尹氏)의 넷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다산은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위대한 사상가이자 학자였으며, 부패한 현실과 싸우며 실학을 집대성한 학자이자, 차 문화 부흥을 이끈 선두주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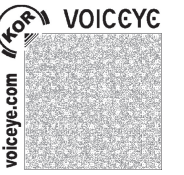
다산의 열이 느껴지는 “남양주 다산 유적지”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에 위치한 다산 유적지는 나라의 부패를 꾸짖던 선생의 찌렁찌렁한 목소리와 깨끗하고 검소한 그의 생활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생가 여유당, 이백 년 세월의 흐름 앞에 절로 고개 숙여지는 다산의 묘, 시대를 앞서간 선구자의 업적과 자취가 전시된 다산기념관과 다산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조명해 보는 다산문화관이 있습니다. 한 걸음이면 뛰어 넘을 것 같은 여유당의 낮은 담장에는 허물없이 백성들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하고자 했던 다산 선생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매년 10월 다산 선생의 생애와 사상을 문화적 시각으로 재조명, 우리 문화를 통해 다산 선생을 직접 체험하는 시민문화축제인 다산문화제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 위치**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산85-2
- 시설내용** 다산 정약용 선생의 묘(경기도 기념물 제7호), 다산 정약용 선생의 생가, 문도사(시당), 기념관, 문화관, 문화의 거리
- 전시물품** 총58종 304점(동상, 영정, 목민심서 등 저서, 가중기, 녹로, 디오드라마, 영상자료 및 조형물)
- 관람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 입장료** 무료

[자료출처: 다산 정약용 홈페이지 dasan.nyj.go.kr]



중국 대체도서 제작의 중심, 중국점자출판사

중국에 처음으로 점자가 전해진 시기는 언제일까요?

문헌에 따르면 1874년, 영국인 선교사 윌리엄 힐 머레이가 영어 점자로 된 성경책을 가지고 오면서부터라고 합니다. 머레이 선교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학교를 세우고 중국 최초의 점자를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후, 다양한 형태의 점자들을 전국 각지에서 만들어 사용하였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된 후 시각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점자와 도서보급을 위해 중국점자출판사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답게 중국의 시각장애인 도서서비스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중국점자출판사와 중국점자도서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대체도서 제작의 중심, 중국점자출판사

1953년에 설립된 중국점자출판사는 중국 전역의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녹음, 큰 글자도서 등 다양한 대체도서를 제작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해, 1400여 종, 30여 만 권 제작이라는 규모에 맞게 여러 개의 건물에 각 과정별 공간을 분리하여 체계적인 출판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곳에서 출판된 도서들은 중국점자도서관을 비롯하여 전국의 공공도서관, 맹학교 등으로 보급됩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세계적으로도 보편화되고 있는 디지털도서를 비롯하여 목·점자혼용 동화책 등 제작 분야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흐름에 맞추어 換骨奪胎(환골탈태) 중인 중국점자도서관

중국점자도서관은 4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점자출판사에서 우편대출 서비스 위주로 운영이 되었다가 지난 2011년 6월, 8층짜리 건물로 확장 이전하였습니다. 규모 확장으로 중국점자도서관의 서비스 또한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찾아와서 다양한 도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주제별, 유형별로 8개의 열람실을 구성하고 보조공학기기를 구비하여 시력에 맞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도서관의 기본적인 기능인 열람과 대출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독서문화강좌, 시각장애인 보조공학기 기 개발 등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이전하면서 새롭게 선보인 곳으로는 촉각박물관과 시각장애체험실이 있습니다. 네비게이션이 장착된 모자를 쓰면 시각장애인 스스로 촉각작품을 만지고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꾸며놓은 촉각박물관은 중국을 비롯한 세계의 다양한 역사문물을 축소하여 전시해놓았고, 시각장애체험실은 시각장애의 원인과 종류, 예방법 등을 흥미롭게 구성해놓아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에게도 훌륭한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공공도서관과 맹학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중국점자도서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전국의 76개소의 공공도서관과 협약을 맺고 자료 제공에서부터 시각장애인서비스 종사자 교육 및 국내외 시각장애인 기관 간 교류와 협력까지 중앙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와 도전에 망설이지 않는 중국, 앞으로의 변화도 기대가 됩니다.

Program

행사 및 주요 프로그램 안내

기초재활교육(점자, 보행) 겨울방학특강

중도실명인을 대상으로 기초 점자쓰기와 읽기, 흰 지팡이를 활용한 목적지 보행훈련을 진행합니다.

- 일 시 : 2015년 1월 12일 ~ 30일
- 장 소 : 복지관 기초재활교육실
- 문 의 : 고용지원센터 02-880-0855~6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비 교육

2015년 1월 24일에 실시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대비하여 시각장애인 대상 최초로 한국사능력검정대비 교육과 수험지원을 실시합니다.

- 일 시 : 2015년 1월 7일 ~ 23일 (수, 금)
- 장 소 : 복지관 3-1교육실
- 문 의 : 정보활용지원팀 02-880-0530~2

시험대비 점자교실 (국어반, 영어반)

점역사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국어, 영어 점자교실을 개설하여 운영합니다.

- 일 시 : 2월 말 ~ 4월
- 장 소 : 점자도서관
- 문의사항 : 점역팀 02-880-0630

정보기기 원격지원서비스

시각장애인들의 원활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태블릿 PC) 사용을 위하여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원격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주 소 : 매주 월 ~ 금 10:00~17:00
- 문 의 : 정보기기지원팀 02-880-0544

시각중복장애학생 지원사업 (청소년, 성인)

시각중복장애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치료 및 교육재활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일 시 : 1월 12일 ~ 2월 13일
- 장 소 : 설리번학습지원센터 교육실
- 문 의 : 설리번학습지원센터 02-880-0601



Notice

알려드립니다

2015 시각장애인 스킵캠프

시각장애인 성인을 대상으로 스키의 기초 자세부터 고급 턴 단계에 이르기까지 개인별 수준에 맞게 강습을 진행합니다.

- 장 소 : 하이원스키장 (강원도 정선군 소재)
- 일 시 : 2015년 2월 중 (2박 3일)
- 문 의 : 문화체육지원센터 02-880-0830~5

2015 전체직원연수

시각장애인들에게 더 나은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실로암 전체 직원들이 모여 2015년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 일 시 : 1월 7일 ~ 10일
- 장 소 : 을왕리 영종스카이리조트
- 문 의 : 기획팀 02-880-0860

시각장애인 생활용구 판매

시각장애인들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생활용구를 전시·판매합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장 소 : 복지관 2층 생활용구실
- 일 시 : 매주 월 ~ 금 09:00~18:00
- 문 의 : 정보기기지원팀 02-880-0542

보조공학 정보제공사업

시각장애인용 보조공학기기를 올바르게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 및 관련정보를 제공합니다.

- 일 시 : 연중
- 문 의 : 정보기기지원팀 02-880-0541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후원계좌

하나은행 577-910002-13904 (예금주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인 개인수술지원

하나은행 577-910005-38004 (예금주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실로암요양원후원계좌

하나은행 577-910008-12104 (예금주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CMS 정기자동이체 신청

전화문의 홍보팀 02-880-0868

※ 귀하가 후원하신 후원금품은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금 내역

구분	복지관 후원	개인수술후원	실로암요양원후원	복지회후원	총액
10월	8,430,150	265,000	2,303,000	2,869,800	13,867,950
11월	17,381,680	255,000	3,913,890	2,516,200	24,066,770

후원자명단

복지관 후원

강미숙 강미혜 강민석 강창구 강희원 고선용 고선화 고지후 광정훈 광현용 광혜영 구보라 권수진 권영미 권정홍 권정희 김경국 김계심 김광훈 김규남 김근하 김기순 김다혜 김도연 김무는 김미경 김미선 김미영 김미옥 김미정 김미현 김민경 김민식 김민정 김병호 김상수 김상영 김선아 김선주 김선하 김성애 김성자 김성진 김성화 김세연 김세영 김소정 김소희 김 수 김숙현 김양수 김영순 김영은 김영준 김영진 김우도 김유리 김은실 김은철 김잔디 김재민 김재성 김재영 김재환 김정은 김주리 김 준 김준영 김태희 김현도 김현정 김혜미 김혜인 김혜진 김호남 김호정 나민형 나서휘 남기윤 남우현 남정환 노계정 노성은 노위제 노하영 노형석 당호영 당화정 도윤희 명태순 문정미 문홍수 민경나 민광기 민병찬 민성환 민수진 민형기 박경선 박경숙 박고심 박광선 박광일 박대삼 박미량 박민규 박상도 박세근 박세희 박술인 박수호 박순이 박예지 박용권 박용석 박용일 박윤선 박은애 박정복 박종원 박지영 박지훈 박진욱 박하니 박혜림 박화경 방명애 배은정 배종석 백순복 봉하중 서성교 서원호 서의승 서희경 성명숙 성지영 성지혜 손경란 손지애 손지영 송경원 송영화 송은숙 송은정 성정숙 송재용 신덕수 신동선 신선화 신성만 신영석 신종현 신혜경 심관석 심재우 안연광 양관동 양호열 엄경순 엄현희 엄리라 오주연 오지수 오태훈 오하나 우재연 유금옥 유남수 유미현 유보영 유인호 유자영 윤나라 윤대현 윤명현 윤보라 윤성재 윤소정 윤진국 이광성 이귀숙 이규성 이길원 이나연 이동훈 이루미 이면우 이미영 이민기 이민지 이민환 이봉희 이상철 이상현 이선례 이선미 이선민 이선아 이설한 이세희 이소현 이 송 이예성 이예일 이옥희 이요한 이윤선 이원재 이은별 이은정 이응우 이인애 이재은 이재희 이정아 이정원 이정민 이정준 이정현 이주호 이지선 이지원 이지훈 이진용 이진중 이진형 이찬신 이창진 이창현 이창호 이창효 이태서 이태준 이하영 이한미 이 현 이현숙 이해현 이화경 이효선 임명숙 임은성 임중재 장석철 장선희 장성자 장수진 장용전 장은경 전영숙 전정자 정갑수 정근우 정다운 정미실 정민지 정보성 정성두 정성민 정성수 정수미 정수진 정연상 정영임 정옥자 정종일 정지혜 정태준 정혜영 조건희 조남주 조용근 조미경 조봉래 조원영 조은일 조은하 조이레 조종수 조진만 조행금 주재은 차진솔 천은선 최경록 최덕영 최동미 최두수 최병현 최승원 최유성 최윤옥 최재석 최중철 최찬삼 허명식 하은성 하은주 하중백 하효선 한경현 한성희 한숙자 한승진 한영실 한재경 한재용 함순식 함요한 함주영 허승희 허철원 홍경미 홍권용 홍성현 홍예진 홍일선 홍호선 황단비 황소영 황순화 황정수 황호영 세월리코리아 아모텍 예장도림교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해오름교회 해피빈

개인수술 후원

고지환 김애경 김정민 이상훈 정연우 정인영 정향산 동부산교회(박문철) 서울동노회여전교회

실로암요양원 후원

계숙경 김동희 김무경 김복희 김영민 김인경 김정숙 김태연 박광선 박은애 박주희 백하형 서문섭 성옥순 안교만 안정임 엄순희 이금선 이민희 이봉희 이숙경 이순창 이영태 이 현 정용훈 조영순 지정규 최영훈 하은주 함요한 함지영 함현식(광림목재) 홍복래 신한후원 실로암인과병원 아워홈 지엘엠세미콘 코리아마트

복지회 후원

강동희 곽인자 권영진 금옥연 김경애 김남식 김미경 김미라 김미혜 김민주 김민혜 김성훈 김수아 김아름 김유빈 김은주 김정래 김정옥 김종규 김주연 김현석 김현정 나병래 남정환 노하영 노현기 맹석재 문지훈 박상근 박성철 복옥희 서범수 송재용 신영실 양미나 어정은 우재연 유은분 유정옥 윤재훈 이도건 이미숙 이민영 이상정 이석주 이성표 이윤아 이창진 이하나 이학로 이행철 임 영 임영희 전영옥 정대영 정정자 정철식 조경자 최동미 최상규 최은수 허미진 황윤희 남서울남성점 노넛도넛 동일교회 예스원 월드비전교회 해피빈

※ 후원금은 시각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을 위해 쓰여집니다. 후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